

사람이란 무엇인가?

What Is It To Be Human?

마태복음 5:27-30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1월 9일 설교

27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9**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또는 무슨 일이든 원인이 있다, 이런 사람이려면 누구나 알고 있는 법칙입니다. 직접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언제나 이 인과법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왜? 하고 묻지요? 이게 바로 인과법칙을 갖고 추론하는 겁니다. 친구가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러면 “왜?” 하고 묻습니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얼굴이 어두워진 원인이 반드시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는 거지요. 답은 뭘니까? 지난 봄에 말씀드렸지요? 머리가 많이 빠져 걱정이라 그랬지요. 머리는 그럼 왜 많이 빠진다고요? 예, 걱정을 많이 해 그렇다 그랬습니다. 걱정하는 것 하고 머리가 빠지는 것 하고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결과인지 헷갈리지만 무슨 일이든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자랄 때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왜요? 하고 대답합니다. 일단 긴장해야지요. 일차 반항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더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컸다는 증거니까요. 사람이려면 다 알고 있는 그 법칙을 내 아이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부를 때마다 이유가 있더라,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예” 안 하고 “저를 부르시는 이유가 뭘니까?” 하는 거지요.

인과법칙을 알아야 생각도 논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중요한 연결어가 “그러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방향을 뒤집으면 그게 바로 “왜냐하면”이 됩니다. 아침을 굶었다. 그러므로 배가 고프다. 이걸 뒤집어 보세요. 배가 고프다. 왜냐하면 아침을 굶었으니까. 이걸 조금 고상하게 말해 뜬 사람이 있지요? 데카르트라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왜냐하면 생각하니까.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보통 육하원칙을 씁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다섯 가지는 그냥 보는 그대로 쓰면 되지만 마지막 “왜?” 하는 건 생각을 해야 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핵심이 바로 “왜?” 하는 겁니다.

순진할 때는 예! 할 줄은 알아도 왜요? 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라야 됩니다. 왜요? 하고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를 기를 때도 왜요? 할 때마다 설명을 잘 해 주어야 자꾸 왜요? 하고 물으면서 쑥쑥 자랍니다.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왜요? 하고 자꾸 물어야 교회가 성숙하는데 목사들이 그게 싫어서 그냥 예! 하라 하지요. 예!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왜요?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예만 하면 교인도 교회도 안 자랍니다. 사회도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서양 중세 시대는 다들 순진해서 왜요? 하고 안 물었습니다. 교회가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똑똑해졌다 말씀드렸지요? 똑똑해진 증거가 뭘니까? 왜? 하고 묻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

왜? 하고 묻고 또 묻다 보니 중세가 끝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게 근세인데 근세의 두 가지 특징이 뭘고 하니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은 것하고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된 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뭘지 다 아시지요? 사람은 다르더라, 온 우주 만물과 다르고 동물하고도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왜? 하고 묻다 보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고 묻다 보니 “사람만 생각할 수 있구나,” “사람만 왜? 하고 물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동물은 자극이 오면 그냥 반응하는데 사람은 자극을 받으면 생각부터 합니다. 자유롭게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그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성이 있고 인간만이 생각을 하고 인간만이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인간 존엄성의 기본이 바로 이 자유입니다.

자연과학 역시 왜? 하고 묻다 보니 발전했습니다. 사과가 툭 떨어질까? 왜 떨어질까 묻다 보니 지구가 잡아당기는구

나. 물체는 그렇게 잡아당기는 특성이 있구나 하고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무거운 돌을 줄에 달아 빙빙 돌리면 줄이 팽팽해집니다. 왜 그럴까 연구해 보니 돌이 힘주는 방향으로 똑바로 날아가려고 해 그렇습니다. 왜? 하고 물으면서 인과법칙에 따라 자연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할렐루야!”가 끊이지 않습니다. 묻고 또 물어가면서 미시의 세계로 들어가 분자 원자도 연구하고 광대한 우주로 뻗어나가 수많은 별도 연구해서 온갖 학문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상 모든 게 인과법칙으로 설명이 되다 보니 “사람은 예외다”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인간만이 이성이 있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유를 누린다고 믿어 왔는데 세상 모든 게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성이라고, 생각이라고 어떻게 예외가 되겠습니까? 만약 이 생각마저 인과법칙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면 자유라는 것도 결국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면 사람의 행동을 두고 좋다 나쁘다 할 수도 없고 잘못된 일에 대해 별도 못 줄 겁니다. 빵을 훔친 사람이 “내 배가 빵을 달라 하는데 눈에 빵이 보이기에 손으로 집어서 먹었다” 했다 칩시다. 배고픈 상태에서 빵을 보고서도 안 먹을 자유가 없다면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나쁘다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벌줄 수도 없을 겁니다. 사람이 동물처럼 그렇게 인과법칙의 지배만 받는다면 윤리도 안 서고 법을 만들어 사회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할 겁니다. 인간 세상도 강자가 독식하는 동물의 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 과학은 발전시켜 놓았는데 정작 그 과학을 발전시킨 위대한 인간은 동물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자유

자연과학이 발전하는 걸 보니까 세상 만물 가운데 인과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인간 존엄성의 바탕이 되는 자유를 부인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혜성같이 나타나 인과법칙과 인간의 자유를 둘 다 살려낸 사람이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입니다. 데카르트, 뉴턴, 칸트. 오늘 여러 명 나옵니다.

칸트 철학은 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연과학이 다루는 자연은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이지 진짜 자연, 곧 자연 그 자체는 아니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자연 그 자체”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는 인과법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자유라는 것도 자연 그 자체에 속한 것이어서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자연 그 자체. 말이 좀 우습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라면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유라는 것도 그렇지요.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못 하지만 논리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사람에게에는 윤리가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는데 자유가 없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윤리라는 게 분명히 있고 도덕도 확실히 있으니 비록 증명은 안 되지만 자유라는 것도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지요? 순서가 뒤집어졌습니다. 자유가 있다는 걸 먼저 증명을 해야 사람에게 책임도 묻고 그래서 윤리 도덕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뜻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해라, 저건 하면 안 된다,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그렇게 하고 안 할 자유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걸 칸트라는 사람이 좀 베껴 먹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빼고 대신 도덕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도덕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지만 칸트는 하나님도 자연 그 자체에 속한 분이니 일단 언급하지 말자 했습니다. 대신 사람이면 누구나 마음에 도덕법칙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걸 볼 때 사람에게에는 자유라는 것도 분명히 있다 한 겁니다.

계명과 자유

칸트는 어떻게 보면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인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걸 아주 멋지게 써먹은 사람입니다. 황금률이 대표적이지만 그건 나중에 산상수훈 끝 부분에 가서 보기로 하고 인간에게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 증명은 못 하지만 마음에 도덕법칙을 갖고 있는 걸 보면 분명 자유가 있다 한 이것도 성경에서 베낀 겁니다.

아담에게 자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자유도 그 형상에 포함이 되는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말씀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아담에게는 그 열매를 따 먹을 힘도 있고 따 먹지 않을 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아담에게 두 가지 가능성이 함께 있지 않다면 명령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 따 먹을 능력이 없다면 따 먹지 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막 태어나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이한테 “너 부엌에 가서 과자 꺼내 먹으면 엄마한테 혼

난다” 해 보세요. 그렇게 말한 엄마가 이상한 사람이겠지요?

반대로, 선악과를 따 먹지 않을 재간이 없다면 따 먹지 말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갓난아기한테 젖을 물리고 “먹지 마!” 한다고 아이가 안 먹겠습니까? 아담에게 따먹지 말라 하셨으니 아담에게는 따 먹지 않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의 벌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책임이지요? 아담에게 따먹지 않을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하신 겁니다. 거역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벌을 받을 겁니다.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풍성한 복을 계속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담은 여자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 핑계를 댔지만 여자는 뱀의 유혹을 물리쳐 이길 자유가 있었고 아담도 아내의 권유를 뿌리칠 자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담은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죽음의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간음죄

오늘 본문은 간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간음이 뭐니까? 요즘은 연예인이나 정치가뿐 아니라 목회자들까지 나서서 못된 본을 많이 보여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난 성관계를 성경은 간음이라 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아닌 사람과 관계하는 것도 간음이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성 관계를 갖는 것도 간음입니다. 성경은 미혼 남녀가 성관계를 가지면 그걸 아예 결혼으로 봅니다. 요즘 사회가 개방되다 보니 간음 정도는 별 것 아닌 것 같지요?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간음하지 말라는 하는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간음죄를 안 지으려고 애썼고 간음죄를 지은 사람은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뿐 아니라 욕하고 경멸하는 것도 살인이다 하시더니 결혼과 무관하게 성관계를 맺는 것뿐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다 간음이라 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뭔지 헛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어느 기독교학생 단체에서 이 말씀을 갖고 토론회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지나가는 여자를 몇 번까지 쳐다볼 수 있느냐?” 하는 게 주제였습니다. 몇 시간 토론한 결론이 뭐였겠습니까? 세 번까지는 괜찮고 그 이상 쳐다보면 간음이다 했답니다. 대학생들이 하는 게 다 이래요. 건질 게 별로 없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을 두고 말한다면 열 번, 백 번을 보고서도 간음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여자를 쳐다보고 그 여자를 탐한다, 여자를 쳐다본 결과 성 충동을 느껴 성관계를 가질 마음을 품는다는 말입니다. 강간하거나 추행할 뜻을 품는 것도 물론 포함되었지요. 또 당시 유대 사회는 남자가 마음대로 하던 사회였습니다.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쉽게 이혼할 수 있었고 마음에 드는 다른 여자와 쉽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유부녀라면 프랑스의 사르코지가 한 것처럼 작전을 좀 써서 남편하고 이혼하게 만들어야 되겠지요? 나도 부인하고 이혼해야지요? 여자를 보고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그런 음란한 뜻을 가졌다면, 그 모든 과정이 이미 간음죄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동물로서 느끼는 성 충동과 본문이 말씀하는 음욕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사람에게서는 동물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보면 성충동 곧 성욕을 느낄 때가 있고 그래서 맥박이 빨라지거나 얼굴이 붉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충동이 있다고 마음에 간음한 것은 아닙니다. 성충동이 오히려 사람이 아니거나 병이 있는 거겠지요. 사람도 동물처럼 자극이 오면 반응을 보이는 인과법칙의 지배를 어느 정도는 받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웃을 입을 때는 남에게 자극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합니다.

사람의 자유

그렇지만 사람은 동물적 특성이 있을지언정 동물은 아닙니다. 동물을 뛰어넘습니다. 동물은 일단 성충동이 일어나면 참지를 못합니다. 사방을 다니며 교미할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인과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자극이 오면 오는 그대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런 생물학적 충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성관계로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할 줄 알고 왜? 하고 물을 줄 알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걸 두 가지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눈을 뽑고 손을 찍으라는 그 말씀에 들었습니다. 동물적인 충동이 울 수 있지만 자유로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표현이 참 과격하지 않습니까? 눈을 뽑아버려라, 손을 찍어버려라, 조지폭력배들이나 쓸 만한 표현을 주님이 그 귀한 산상수훈 말씀에서

쓰셨습니다. 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셨을까요? 우리가 가진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라는 게 그만큼 무겁고 심각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눈과 손은 다 신체기관입니다만 하는 일은 좀 다릅니다. 눈은 주로 바깥의 자극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하고 손은 내가 반응을 보일 때 주로 쓰는 기관입니다. 눈이 원인을 제공하면 그 결과가 손을 통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눈은 수동적입니다.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보는 것을 통제하지 못해 죄에 빠져 놓고 감각은 수동적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을 자유도 있고 그걸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경우 주님 말씀처럼 눈을 뽑아버릴 자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손은 더 그렇습니다. 모든 행동을 직접 해내는 게 손인데 때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았든 몰랐든 내 손입니다. 그러니 손을 찍어버릴 자유도 나한테 있습니다. 손 때문에 그랬다는 핑계는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눈도 내 눈이요, 손도 내 손입니다. 눈으로 자극을 받아들일 때도 자유를 활용할 수 있고 받아들인 자극에 대해 손으로 반응을 보일 때도 자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책임

자유가 있다는 두 번째 증거는 간음죄를 지은 사람에게 지옥의 벌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지옥을 잘 안 믿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곳에서 영원히 고생하게 하시겠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지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똑같은 성경이 말씀하고 똑같은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인데도 마음에 안 들면 에누리해 버립니다. 내 마음이지요? 내 자유입니다.

사람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자유입니까? 죄 안 지을 자유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를 누린다면 책임도 져야 됩니다.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상을 약속하시고 죄 짓는 사람에게는 지옥의 형벌을 약속하셨습니다. 생각할 자료는 충분히 주셨습니다. 온 몸 멀쩡하게 갖고 죄 짓다가 지옥으로 가 영원히 고생하는 게 나올까, 아니면 죄 짓게 만드는 건 눈이든 손이든 발이든 다 끊어 버리더라도 영원한 낙원에 가는 게 나올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자유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정하면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지옥에 가야 됩니다. 죄를 짓고 안 짓는 건 자유지만 일단 지었으면 벌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옥에 던지운다” 하는 수동태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던져지는 그게 알고 보면 내가 선택한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로는 본문 29절과 30절이 똑같이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하고 되어있지만 원문을 보면 29절은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한 반면 30절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지옥사자가 인과법칙에 따라 지옥에 던져 넣겠지만 제가 제 자유로 선택한 것이니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던지우는 거나 들어가는 거나 같은 거지요.

우리 시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성도덕이 하도 타락해서 간음 정도는 죄로 치지도 않는 시대라 그렇기도 하지만 자유와 책임을 너무나 가볍게 보는 시대라 더 그렇습니다. 서양에서는 자유와 책임이 있어 인간이 존엄하다고 보았습니다. 동양에서도 온 우주에서 사람이 가장 귀한데 그 이유는 오륜이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책임,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양심과 도덕, 사회의 윤리와 질서, 이런 게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데 이게 다 사람이 하나님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학문이 하도 발달해서 사람의 생각조차 인과법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하버드에서 오래 가르친 스키너라는 사람은 인간의 몸뿐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다 인과법칙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는 환상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참 멋진 연구 같습니까? 자유가 환상에 불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도 못 지고 벌도 못 줍니다. 인과법칙이 있으니 원인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게 없다면 원인은 언제나 밖에 있겠지요? 나는 자극이 오는 대로 반응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는 대신 남에게 뒤집어씌웁니다. 이 미국에 그런 풍조가 강합니다. 내가 눈에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땅 주인한테 치료비를 내 놓으라 합니다. 내가 좋아서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려 놓고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

송을 했는데 이겼습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유럽의 어느 골초가 비슷한 소송을 했다가 졌습니다. 판사가 소송한 사람한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여긴 미국이 아닐세.”

그 어느 때보다 사람이 잘났다 생각하는 우리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자유를 무시하고 책임을 외면하고 그래서 스스로 짐승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른은 책임집니다. 핑계는 어린아이나 대는 건데 우리 시대는 기꺼이 어린아이가 되고자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이 싫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저런 말씀을 주시며 순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싫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

로마서는 말씀하기를 죄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사람이 무슨 꼭두각시가 된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의 본성이 강해 선택할 때마다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짓는 쪽으로 선택한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죄 짓도록 조종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택도 내가 하고 죄도 내가 짓습니다. 그래서 벌도 내가 받습니다. 그 어떤 핑계도 소용없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더 큰 책임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해 죄에 빠지지만 주 예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얻은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죄를 지어 잃어버렸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은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영광스러운 만큼, 존귀한 만큼, 우리는 그 영광, 그 존귀를 값어치에 맞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남용해 죄 짓는 걸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되찾아 주셨는데도 책임 있게 쓰는 대신 하나님께 다시 넘겨 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다시는 노예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눈을 뺏아서라도, 손을 짚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간음이 무시무시한 죄라는 것도 배우지만 사람이 무엇인지 그것도 함께 배웁니다. 사람은 자유요 책임입니다. 참 자유를 얻은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주신 자유를 만끽하며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죄를 철저히 멀리 하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내 영원의 운명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핑계하지 않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어른다운, 진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